

안임병남

An Lim Byoung Nam

안임병남 An Lim Byoung Nam

b. 1995. 06. 03. 서울, 대한민국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anbyoungnam95@.com

*website : byoungnaman.com

[교육]

2025 로열컬리지오브아트 현대미술실천과 석사 졸업

202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석사 졸업

202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졸업

[단체전]

2025

Navigation Coordinates : Island Practice Manual x Floating Images, 길링 스트릿 아방가르드 극장, 타이페이, 대만

Emo-Film Screening, 로열컬리지오브아트 프로젝트 스페이스, 런던, 영국

R.C.A Graduate Show, 로열컬리지오브아트, 런던, 영국

«교환일기 프로젝트 B.R.P.», 로열컬리지오브아트 프로젝트 스페이스, 런던, 영국

2023

«아이스크림 밀어넣기», 을지로OF, 서울, 대한민국

«When You Leave, Please Leave Me a Message», 우석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Throw Me a Bone», 우석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20

안병남, 김민수 2인전 «리딩룸», 킵인터치서울, 서울, 대한민국

[지원금]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기금 운용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공간 지원금, 전시공간 Keepintouchseoul, «Reading Room»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안임병남은 연약한 대상들에 관심을 가지며 동시대 포스트-미디엄의 조건 속에서 회화, 영상, 설치 등 다매체적 접근법을 가진 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회화 작품에 매진했던 시기에 가졌던 대상의 프레이밍, 시선의 일방향성, 서사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영상 및 공간 설치 작품을 시작하며 해결,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 그의 관심사는 연약하거나 그렇기에 이동하는 몸, 동시대의 두려움들, 타인의 고통, 시간에 따라 사라지는 것들에 있다. 영상에서 작가는 사전에 스크립트를 쓰는 등 연극적이거나 배우들의 몸으로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사용하는데 이는 그가 회화에 집중하던 시기 공간에 놓인 오브제인 동시에 역사가 오래된 늙은 몸을 가진 것(일종의 연기자)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회화를 옆면이 존재하고 무게를 갖고 있으며 빛에 의해 드러나는 상대적인 것으로서 인지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상태는 화면 안의 환영과 대치하며 공존한다.”

- 작가 노트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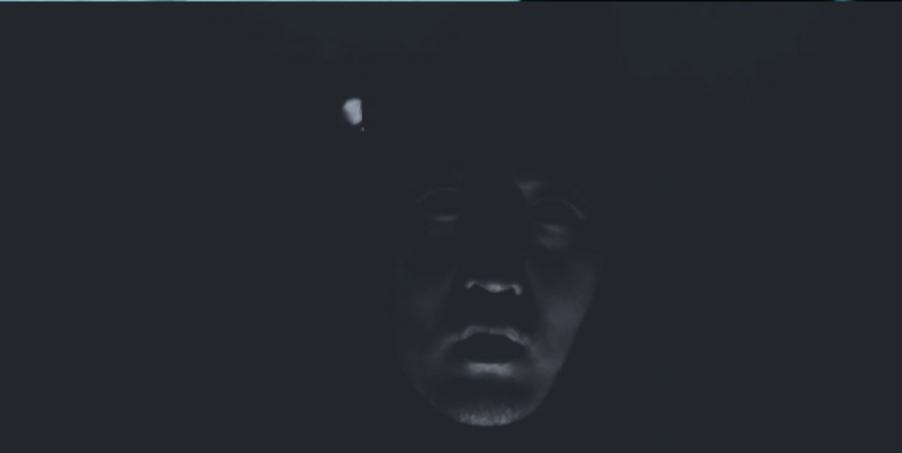
표현 매체 자체에서 공간을 구성하고 재료를 조합하는 것으로 안임병남의 관심사는 옮겨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관심사는 대상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 영상과 회화 모두에서 그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거나, 어둡게 보이게 만든다. 너무 많은 것들을 보고 들어야 하는 동시대 미디어의 상황 속에서 대상을 왜곡 없이 바라볼 수 있는가? 안임병남은 오히려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상을 보지 못하게 ‘어둡게 하기, 가리기, 흐리기’한다. 회화에서는 추상화되거나 거친 화면을 통해서, 영상에서는 서사를 조작하거나 코스튬, 가면 등의 방법론으로 마주한 어려움을 수용 및 저항하고자 한다.

“늙고 병든 기사도 여전히 자신이 마주한 트러블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

- 영상 «플레이! 피어노츠» 작가 노트 中



Sometimes there is something I can see by closing my eyes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 보이는 게 있어



Or was it cold? Who know it?
아니 차가웠나? 누가 그걸 알겠어?



Sliding Rumors 2025. 12'21"

Staff

Written & Directed by Byoung Nam An

Filmed by Jim Roh & Byoung Nam An(Ongoing)

Performed by Myungmin Liu, Momo Ma, Mathew Wang, Byoung Nam An

Music Composed by Maurice Ravel, <Boles>, 1928

Music Played by Sergiu Celibidache, 1971

Intro Sung by Momo Ma, Mathew Wang, Byoung Nam An

Lighted by Soojung Huh(Hand Shadowing), Mathew Wang

Subtitle & Translation Reviewed by Eunbin Goh

Location

London

Rawson Court 36, Owned by Svetlana Popkova

Battersea Park Forest

Mathew Wang's house(Ongoing)

Advisory

Crit & Advisory by Pil Coll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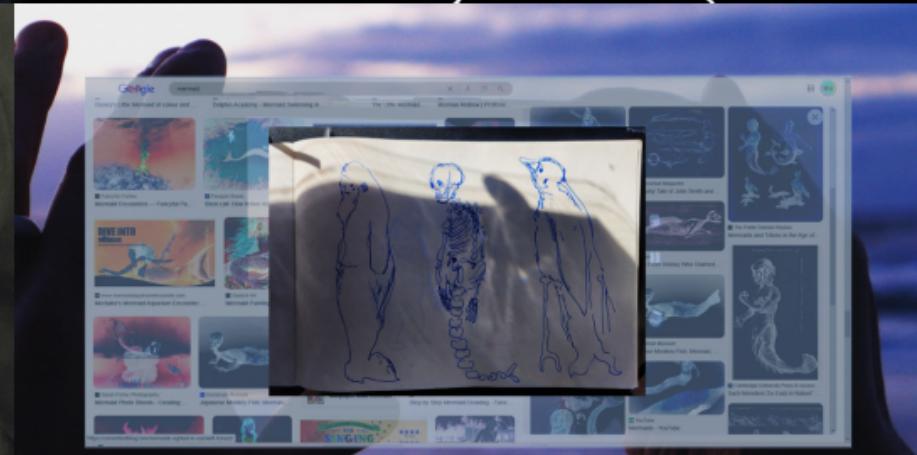
Conversation with Eunbin Goh & W.H.Lee(Ongoing)

미끄러진 소문들 Sliding Rumors, 2024-2025, 단채널 영상, 13'22"

«미끄러진 소문들»은 침몰했다는 배, 어딘가의 군대, 화재 등 끊임없이 들려오는 타인의 위기 소식에 반응한 작업물이다.

세 명의 인물들은 방에서 용의 불, 낭만적으로 보이는 배, 추위에 떠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 하며 대화를 통해 다가가고자 하지만 대화는 계속해서 미끄러진다.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소문으로 들려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했다.

이 모든게 미디어와 시차 때문이라면, 그 사람들 말마따라 머지 않았다는 미래 속에서 화성에 간 사람들의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각될 수 있을까?



지운 별 Sun Erased You, 2025, 단채널 영상, 12'19"<https://vimeo.com/manage/videos/1085983967>

지운 별 The Sun Erased You, 2025, 단채널 영상, 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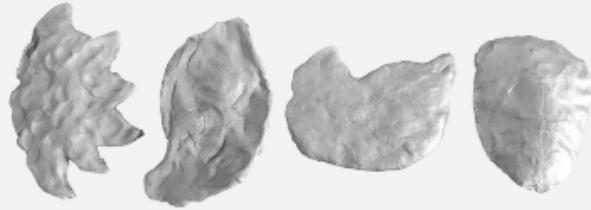
오아네스는 신화 속에 등장하는 늙은 남성 형태의 인어이다. 현재 인어는 장발의 진저 색 여성의 이미지가 완고하다.

과거의 그 노인 인어는 현재 생존하지 못한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영상은 시작한다.

사라지고 있다는 별들, 또한 인간이 이족보행을 한 이유로 생긴 고질 병이라는 척추 뼈 문제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에게 전하는 몽타주 형식의 영상이다.

사라진, 혹은 여전히 사라지고 있는 그 존재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는지 반추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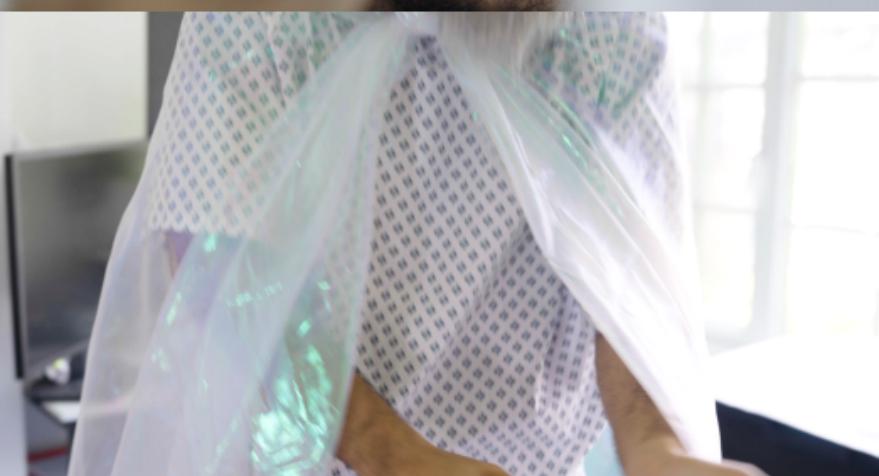
뙤약 별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부터 '너'의 창가에 비추는 햇볕까지 걸보기에 전혀 무관해 보이는 대상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는 몽타주 영상이다.



피어노즈를 위한 얼굴 가리개(좌) *Mask for Pfeaf Notes*(left), 2025, 클레이 조각 위 은색 스프레이 페인트

피어노즈(우) 영상 스틸 이미지, *Pfear Notes*(right), 2025, 단채널 영상, 14'25",

<https://vimeo.com/manage/videos/1084945834>



플레이! Play!(Pfear Notes), 2025, 단채널 영상, 13'44"

『플레이!』는 세르반테스의 저서 『돈키호테』의 한 대목을 연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밤의 숲에서 사실은 연극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악마 복장의 배우와 조우하는 장면이다.

악마가 배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도 그를 악마로 여기고 맹비난 하는 돈키호테와 산초의 모습을 독자들이 조소하게 되는 부분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돈키호테는 두려움과 풍자에 대한 저서로 시대가 지나도 그 시대의 두려움들에 조응하며 다시 읽힐 수 있다.

인도 출신 배우와 사전에 두려움 교환 노트를 작성하고, AI, 감시 드론, 노동, 늙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푸티지 영상을 기록한다(『피어노즈』 작품 참조).

두사람은 각각 해골과 늙은 기사 코스튬을 한다.

연극 리딩과 본인의 두려움을 말하는 영상이 번갈아 가며 나오고 우리가 마주한 두려움들은 허상인지 진짜인지 반문한다.

영상의 말미에서 두사람은 함께 이불을 두르며 꿈에서 깨듯 풀 밭 위에 누워 대화를 나눈다. 이 장면은 영상의 시작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영상의 재귀적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시간 속에서 반복되는 화두인 두려운 미래에 서로를 어떻게 보살피며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고자 한다.



성(비행 연습) *A Broken Castle(Floating Practice)*, 2025, 단채널 영상, 06'35", <https://vimeo.com/manage/videos/1126084393>

성(비행 연습) A Broken Castle(Floating Practice), 2025, 단채널 영상, 06'35"

«성»은 존 컨스터블의 회화로도 알려진 장소인 영국의 Hadleigh Castle에서 찍은 퍼포먼스 영상이다.

100년 전쟁에 의해 무너진 이곳은 현재 새들의 거처가 되어있다.

영상 속에선 어두운 성 속에서 양 팔을 벌린 채 휘파람을 불며 성을 걷는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은 눈을 감은 채 한 발, 한 발 발을 내디고, 휘파람 소리는 이내 새들의 날개짓과 울음소리와 중첩된다.

새들과 무너진 성은 모두 과거로부터 시간을 견뎌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물의 몸짓은 무너진 것, 혹은 살아남은 것들과 조용한다.



리슨 *Listen*, 2025, 단채널 영상, 14'31", <https://vimeo.com/manage/videos/1133177511>

리슨 Listen, 2025, 단채널 영상, 14'31"

«리슨»은 일제 강점기 시절 중개지였던 선유도의 저수지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사실상 중개지로서의 기능보다 버려진 섬이었던 선유도는 저수지가 건설되고 현재는 폐허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쉼터 및 공원으로서 기능하는 장소다. 영상 속 인물은 저수지의 건축물에 기대 소리를 듣는다. 듣는 행위와 남겨진 장소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하고자 만든 영상이다. 장소가 증언하고 말하는 잊혀지는 기억과 소리들이 있다.

Someone said the problem was caused by building the house quick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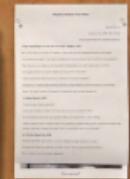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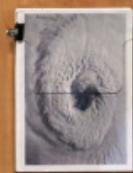


사막에서 In the Desert, 2024, 단채널 영상, 08'18"

«사막에서»는 2021년과 2024년에 취재한 파주 신도시 공사 지역의 모습을 담는다. 한 때 농가와 주택, 산책로가 있던 장소는 현재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했다. 영상은 이렇게 생성된 사막의 다면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공사장의 폐허 풍경, 사막, 구글 맵, 모델링으로 구현된 사막의 유토피아적인 이상향 등이 그것이다. 이상화된 장소가 어떻게 폐허로서 현재에 나타나는지에 대해 재고하며 영상은 일시적으로 장소를 점유하는 몸들을 보여준다. 사막에 누워있거나, 배회하거나, 회전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한 때의 기억이 꿈결처럼 잔존하는 상태를 비추며, 결과적으로 자본으로 사유화되는 공동체의 발전, 이상, 만연한 유토피아 담론의 빈 틈을 발견하고자 한다.



영상 설치 예시 «미끄러진 소문들 The Sliding Rumors»(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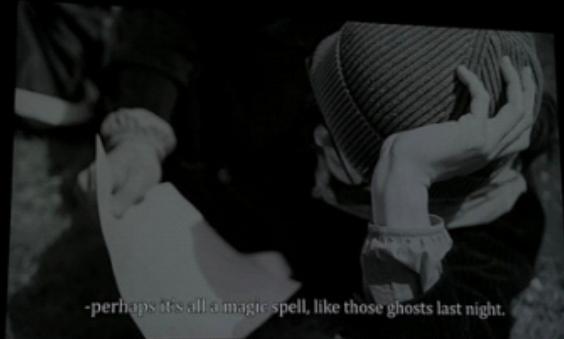


영상 설치 예시 «R.C.A. Graduation Show»(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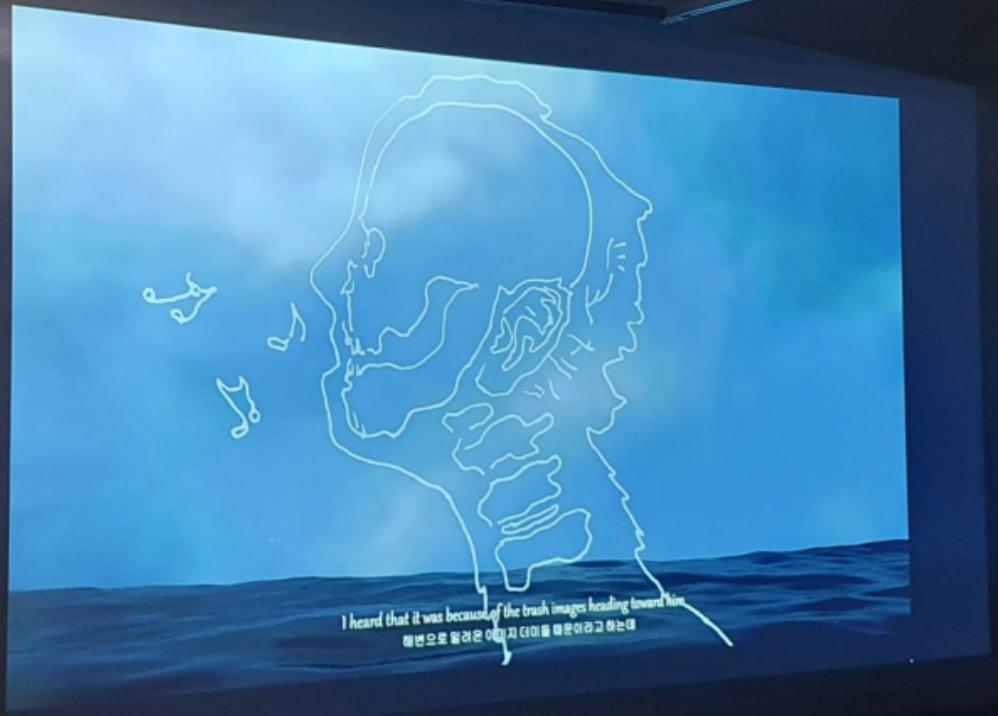
«플레이! Play!(Pfear Notes)» Screening Event, Grovy Theatre, 2025, 런던, 영국

007 1





«성 A Broken Castle» Screening Event «Floating Projects», Guiling Street Avant-garde Space, 2025, 타이페이, 대만



«지운 별 The Sun Erased You»Screening Event «Emo-Film», Project Space R.C.A, 2025, 런던, 영국



밤의 유령과 산책자 Night Ghosts and Wanderer, 2021, 캔버스에 유화, 버려진 산업용 각재, 철, 트레이싱 종이 등, 가변설치 / <https://vimeo.com/manage/videos/736913453>



밤의 유령과 산책자 Night Ghosts and Wanderer, 2021, 캔버스에 유화, 버려진 산업용 각재, 철, 트레이싱 종이 등, 가변설치 / <https://vimeo.com/manage/videos/736913453>

밤의 유령과 산책자 Night Ghosts and Wanderer, 2021, 캔버스에 유화, 버려진 산업용 각재, 철, 트레이싱 종이 등, 가변설치

밤의 유령과 산책자는 공간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설치된 나무 조각물을 파주 신도시 개발 현장과 개발되지 않은 농지 중간지대에 위치를 옮기며 야외 설치를 선행했다. 아직 미완의 상태를 지향하며, 도시의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의 폐허의 일면을 닦은 설치물들은 공간에 떠있고 돌아다니는 종이 위 드로잉들과 함께 놓였다. 마치 움직임을 추상화한 것 같은 조형물들 사이로 관객들이 동선을 그리며 걸어다니고, 빛에 의해 조용하는 그림들이 벽에 걸려있다. 밤에 더 폐허로 변모해 보였던 도시 풍경을 재구성하고자 한 작품이다.



1. 노래하는 머리들 *Singing Heads*, 2025, 석고, 양배추, 수집된 돌, 소라 껌질, 새의 깃털, <https://vimeo.com/1057438260>



아카이브 이미지(상단) Archive Images



2. 거울 *A Mirror*, 2025, 거울, 조개 껌데기, 구슬



3. 머저리 배 *Dumb Boat*, 2025, 흙, 손전등, 스티로폼, 지팡이 등, 가변설치

1. 노래하는 머리들 Singing Heads, 2025, 석고, 양배추, 수집된 돌, 소라 껍질, 새의 깃털

'양배추는 Cabbage이고 Chinese Cabbage가 아시아의 일반 배추를 일컫는다는 점'과, 'Cabbage의 어원에 머리라는 의미가 담겨있던 사실'을 리서치하며 작가가 관심을 가져온 사물이다. 말과 오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담긴 사물이다. 머리라는 으시시한 말과 실제 양배추 사이의 미끄러짐은 두려움을 연기하지만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두 영상(미끄러진 소문들, 플레이! 피어노즈)과 닮아 있다. 조각은 '노래하는'이라는 설명처럼 조각 내부에는 구멍(Hole) 공간을 만들어 소리 장치와 결합할 수 있게 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녹음한 허밍이 들려온다.

2. 거울 A Mirror, 2025, 레디메이드 거울, 조개 껍질, 구슬

«거울» 버려진 레디메이드 거울의 테두리에 조개 껍질과 구슬을 붙인 공간 설치, 오브제 작품이다. 거울 바닥이나 벽에 설치되어 시각의 다른 틈을 비추는 역할을 하며, 구슬의 반사되고 굴절되는 시각성이 거울의 단일하지만 분열된 시각성을 한층 더 강화하며 조개 껍데기는 훨씬더온 것, 떠내려온 것으로서 거울을 장식한다.

3. 머저리 배 Dumb Boat, 2025, 흙, 손전등, 스티로폼, 지팡이 등, 가변설치

«머저리 배»는 연극(영상, 피어노즈, 미끄러진 소문들)에 쓰이고 남은 소품들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설치 작품이다. 이동할 때 버려지는 사물들처럼 작고 사소하며, 잉여적인 소품들은 한데 모여 배와, 뱃사공을 은유하는 수염과 노로 표현되고 이는 훗날 있을 전시장 설치물들의 예비 상태이다. 마치 방주처럼 씨앗과 식물을 싣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 하찮게 구성되어 있다.



연극과 회화 *Play and Painting*, 2025, 캔버스에 유화, 알류미늄 액자, 캔버스 각 20.8 x 20.8(cm) / 액자 각 29.7 x 21.0(cm)



갈라지는 빛 *Crack on an Eye*, 2024, 캔버스에 유화, 40.9 x 40.9(cm)



큰 새 *Big Bird*, 2024, 캔버스에 유화, 40.9 x 31.8(cm)





큰 새 *Big Bird*, 2024, 캔버스에 유화, 40.9 x 31.8(cm)





빛 *Light*, 2024, 캔버스에 유화, 40.9 x 40.9(cm)





메아리 *Echoing*, 2025, 캔버스에 유화, 31.8 x 31.8(cm)



검은 하늘, 2024, 캔버스에 유화, 20.8 x 20.8(cm)



침묵, 2025, spray paint on canvas,
16.5 x 16.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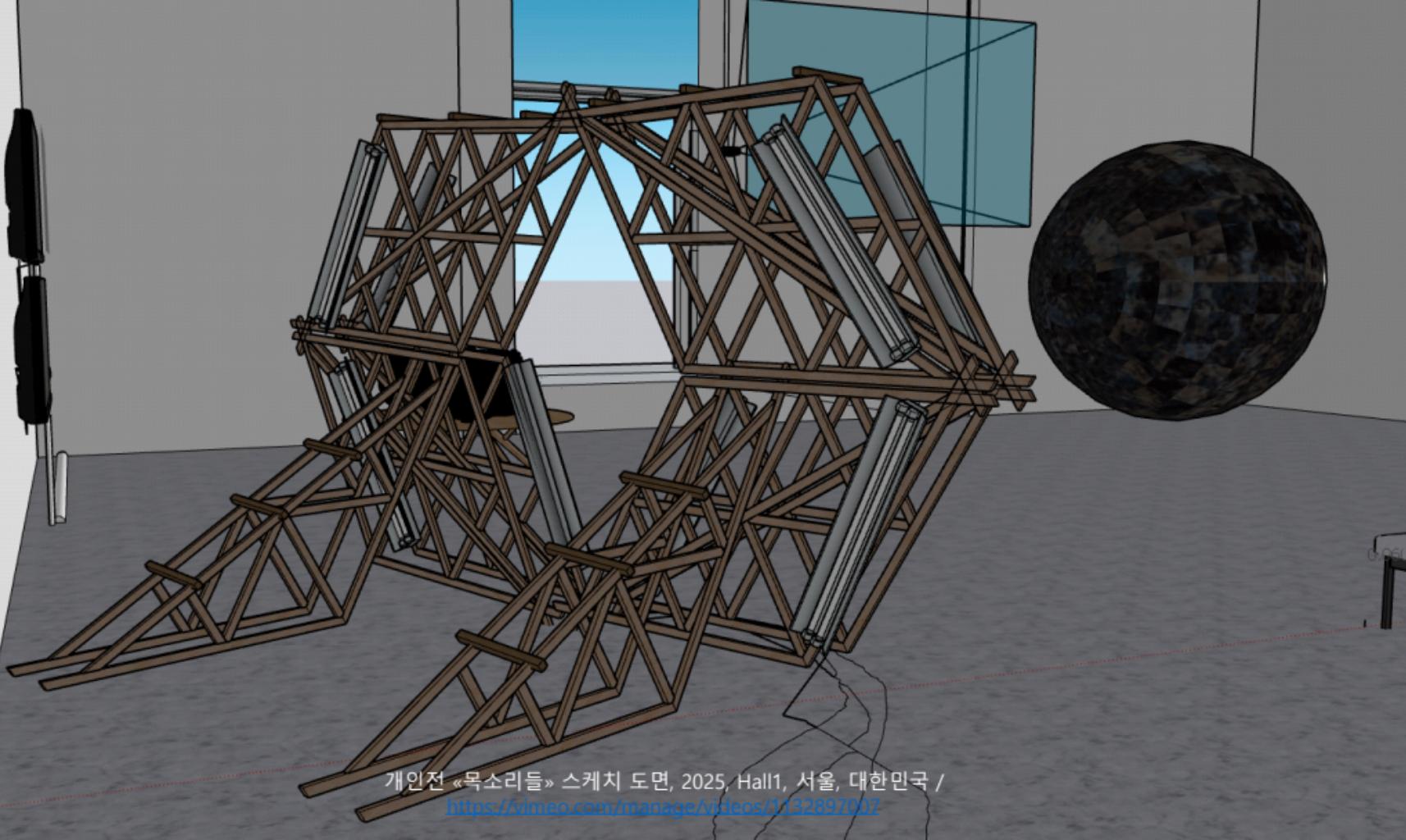
빛, 2025, 캔버스에 유화,
20.8 x 2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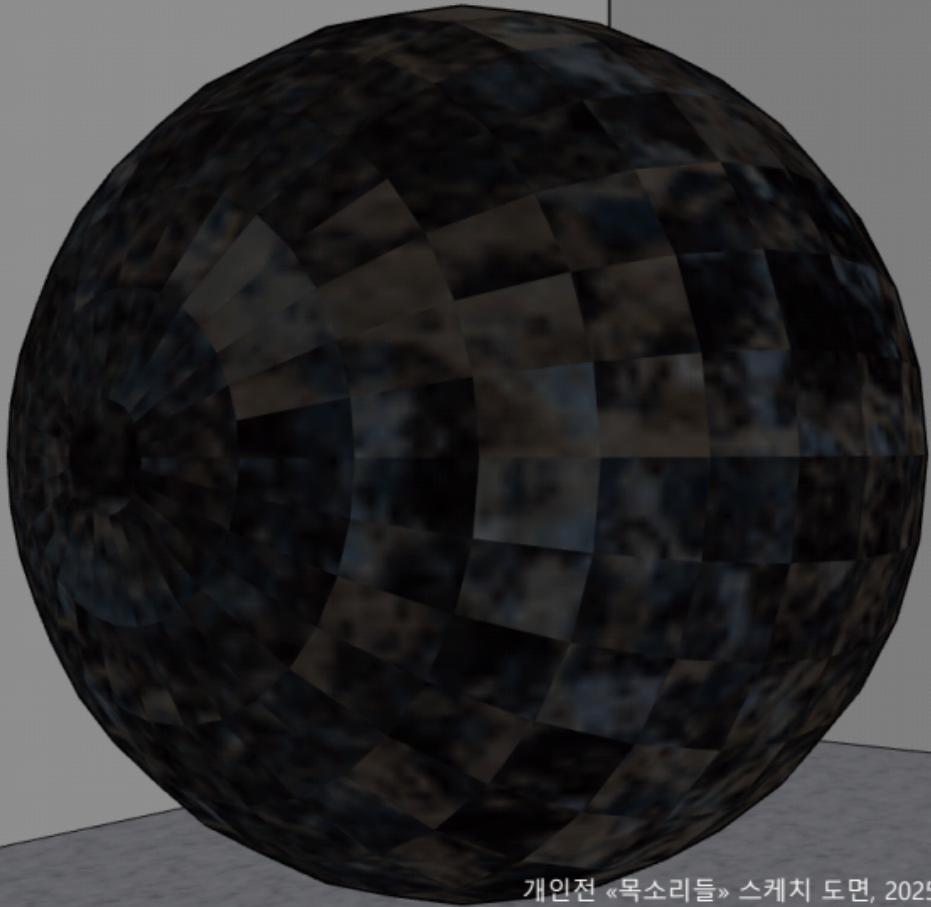
로고 *Logo*, 2023, 캔버스에 유화, 40.9 x 3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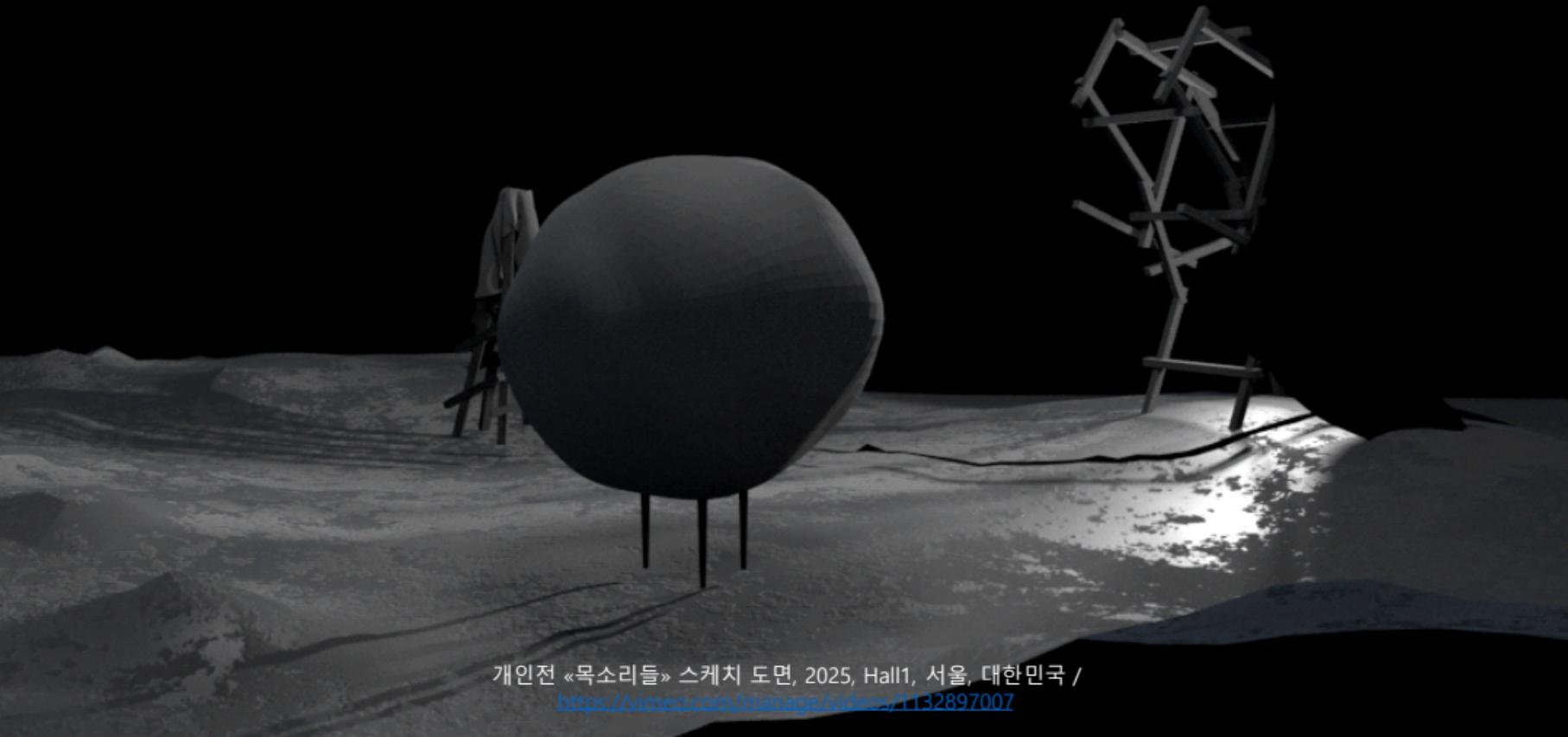
밤 쇼핑 *Night Shopper*, 2023, 캔버스에 유화, each 40.9 x 31.8(cm)



개인전 «목소리들» 스케치 도면, 2025, Hall1, 서울, 대한민국 /
<https://vimeo.com/manage/videos/1132897007>



개인전 «목소리들» 스케치 도면, 2025, Hall1, 서울, 대한민국 /
<https://vimeo.com/manage/videos/1132897007>



개인전 «목소리들» 스케치 도면, 2025, Hall1, 서울, 대한민국 /
<https://vimeo.com/manage/videos/1132897007>

목소리들 Moksoridl

“휘파람이 태풍을 소거시킬 수 있을까?”라는 작가노트의 한 문구는 «목소리들»이라는 전시를 통해 구체화 된다. «목소리들»은 목소리에도 중심과 주변이 있다면, 제압과 주장의 큰 목소리가 아닌 침묵을 지키거나 타인을 개인의 차원에서 걱정하고 위하는 작고 파편적인 목소리들(휘파람에 비유되는)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처럼 목소리에는 두가지 양태가 있다고 작가는 가정한다. 주장하는 강한 목소리와 주변적인 잉여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하지만 두가지가 주체에 언제나 공존함을 자각하는 순간 이러한 이항 대립은 무의미해진다.

피사체에게 작가의 손에 들린 카메라는 종종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할 때, 작가는 프레임(Framing)의 위계적 시선과 위치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따라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의 시선이 아닌 일종의 ‘극 Play’를 만드는 방법론을 차용하면서도 여전히 연기자의 정체성을 염두한다. 극은 일종의 준비된 놀이인데, 특히 전문적인 배우들이 아니라 아마추어 배우들이 사전에 스스로 준비하거나 작가에 의해 준비된 스크립트를 연기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영상 속 인물들은 연기자와 당사자의 두가지 상태의 중간에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다. 코스튬과 가면 역시 배우들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흐리면서 특정 주제에 타인을 개입시키는 방법의 허구성과 위선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_ 개인전 기획서 중 일부